

투지·근성 빛난 대한의 딸들



앞치락 뒤치락 120분 혈투 3대3 → '11m 룰렛' 승부차기 5대 4 승 → FIFA대회 첫 우승 쾌거

전후반 90분과 연장전 30분에 승부차기까지 120분이 넘는 혈투를 펼치면서 끝까지 집중력을 지켰던 태극소녀들의 정신력이 빛난 승부였다. 최덕주 감독이 이끄는 17세 이하 여자월드컵 한국대표팀은 26일(한국시간) 트리니다드 토바고 수도 포트 오브 스페인의 해슬리 크로퍼드 스타디움에서 열린 월드컵 결승전서 여민지(함안대산고)와 주수진(현대정보과학고)을 투톱으로 좌우 날개에 김나리와 이금민(이상 현대정과학고)을 출격시켰다.

전반 6분, 한국이 선취골을 뽑아냈다. 미드필드 중앙에서 김나리(현대정과학고)의 패스를 받은 이정은(함안대산고)이 페널티킥 부근

에서 강력한 오른발 슈트로 일본의 골 그물을 힘차게 흔들었다. 일본의 추격도 만만치 않았다. 전반 11분 왼쪽 코너킥 상황에서 후방으로 볼이 흐르자 나오모토 히카루가 미드필드 오른쪽 부근에서 중거리슛으로 만회골을 넣었다.

일본은 전반 17분 미드필드 지역 오른쪽에서 다나카 요코의 중거리슛이 한국 골대 오른쪽 앞에서 한 차례 바운드 되며 그대로 빨려 들어가 역전에 성공했다. 한국은 전반 추가 시간 1분이 주어진 가운데 미드필드 지역 오른쪽 부근에서 프리킥을 얻었고, 주장 김아름이 강하게 찬 볼이 골대 앞에서 푹 떨어지며 골 그물을 흔들었다.

후반 12분 왼쪽 날개로 나선 일본의 에이스 요코하마 구미가 페널티지역 왼쪽 엔드라인 부근까지 치고 들어와 땅볼 크로스를 올리자 쇠도하던 가토 치카가 골 지역 정면에서 한국 수비수 2명 사이에서 발을 뻗어 재역전골을 터트렸다.

최덕주 감독은 후반 33분 지친 김나리 대신 이소담(현대정과학고)을 투입했고, 이소담은 감독의 선택에 동점골로 부응했다. 이소담은 투입된 지 1분여 만에 미드필드 지역 중앙에서 기막힌 하프 발리슛으로 3-3 스코어를 기록한 뒤 승부를 연장전으로 이끌었다.

한국과 일본 선수들은 연장 전후반 30분 동안 이렇다 할 공세를

펼치지 못한 채 결국 승부는 '11m 룰렛'으로 불리는 승부차기로 접어들었다. 한국은 일본의 선축으로 시작된 승부차기에서 1번 키커 다나카의 슈트가 성공하고 나서 1번 키커로 나선 이정은의 슈트가 골키퍼 선방에 막혀 무효가 됐다.

일본의 2번 키커 와다 나오키의 슈트가 크로스바를 넘고 나서 곧바로 여민지의 슈트가 골대를 파고들어 균형을 맞췄고, 한국과 일본은 5번 키커까지 나란히 골을 주고받으며 4-4가 됐다.

이제부터는 한 번의 실수가 승부를 가리는 서든 데스. 일본의 6번 키커 무라모츠 도모코의 슈트가 크로스바를 때리며 기회를 잡은 한국은 마지막 키커로 나선 장수기가 우승을 결정하는 마지막 승부차기 골로 FIFA 주관대회 첫 우승이라는 한국 축구의 역사를 새롭게 장식했다. /연합뉴스

♥신축건물에
우아하고 품격있는 객실!

♥각종 이벤트 행사
장소로도 적합!

무인텔

1객실 1주차
도심속 정통무인텔!

☎ 062) 523-7789

광주광역시 북구 유동 105-1번지
현대백화점 옆 LG전자 뒷편

인터넷주소 : www.feelhotel.kr

테마룸 → 썬 뉴베드 두바이 산토리니 씨클 재부라 플라워 피스 원기둥 네이처
NAVER 검색창에 무인텔 필 을 쳐보세요!